Check for updates

Two Typographic Strategies in Korean Bibles of the Individual Translation Period

Ja Eun Ku*

Visual Communication Design, Professor,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nsan, Korea

Abstract

Background Early Korean Bibles are among the first modern Hangul letterpress publications and provide important evidence for the formation of Korean typography.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mainly on Christianity and Korean linguistics, while typographic analysis has remained limited. This study examines the typ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oss and Yi Su-jeong groups during the Individual Translation Period.

Methods Four editions were analyzed: Yesu Seonggyo Nuga Bokeum Jeonseo (1882), Sinyak Magajeon Bogeumseo Eonhae (1885), Magaui Jeonhan Bogeumseo Eonhae (1887), and Yesu Seonggyo Jeonseo (1887). Typefaces, page format, layout, information hierarchy, and symbols were compared.

Results The two groups developed distinct typographic strategies. The Ross group emphasized spatial efficiency and distribution, while the Yi Su-jeong group developed clearer information hierarchy and reading experience. Both retained existing Hangul conventions while selectively adopting Western typographic principles through limited spatial and symbolic devices.

Conclusions Early Korean Bible typography was not a simple transplantation of Western typography. The Early Korean Bible selectively incorporated new typographic elements within existing Hangul conventions, showing an early form in which modern printing practices and traditional Hangul typography were combined.

Keywords Hangul, Typography, Bible, Individual Translation Period

This work was done by 2026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search Fund.

*Corresponding author: Ja Eun Ku (jku@seoularts.ac.kr)

Citation: Ku, J. E. (2026). Two Typographic Strategies in Korean Bibles of the Individual Translation Period.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9*(4), 485-496.

http://dx.doi.org/10.15187/adr.2026.11.39.4.485

Received : Jul. 27. 2026 ; **Reviewed :** Sep. 06. 2026 ; **Accepted :** Sep. 10. 2026
pISSN 1226-8046 **eISSN** 2288-2987

Copyright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educational and non-commercial use,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 1. 연구 배경

초기 한글 성경은 일반적인 성경 번역의 과정과 달리, 첫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번역과 출판이 이루어졌다. 1882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매킨타이어(J. MacIntyre)와 로스(J. Ross)는 만주에서, 1884년 이수정은 일본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인쇄했다. 이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1885년 조선에 입국할 때 이미 이수정의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다. 레이놀스(Reynolds, 1906)는 이처럼 한글 성경이 선교 이전에 번역과 출판이 이루어진 사실이 한국교회의 빠른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글 성경은 종교의 성장뿐 아니라 민족의 근대화와 신문화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글 보급과 국어학·국문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병철(1975)은 한글 성경이 언문일치 문체를 정착시키고 개화기 신문과 신소설의 문체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으며, 최현배(1962)는 한글 보급과 문자 교육, 한글에 대한 존중 의식, 한글 전용 운동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의 한글 성경 연구는 주로 기독교학과 성서학, 국어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한글 성경은 근대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와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일한 텍스트가 제한된 환경에서 각각 다르게 제작된 특수한 조건의 타이포그래피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들 시각자료에는 당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설계 목적과 원리가 드러난다.

1. 2. 연구 범위

한글 성경 역사에 있어서 쉬운 한글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도록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였다. 초기 천주교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한문 독해가 가능한 양반층을 대상으로 한문성경을 사용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에서 발행한 초기 한글 성경을 대상으로 한다.

한글 성경의 번역사는 개인역 시대(1882~1892), 위원회역 시대(1893~1910), 개역성경 시대(1911~1938)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그중 개인역 시대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역 시대는 번역자와 출판 주체에 따라 타이포그래피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과도기이다. 위원회역 시대 이후에는 표준화된 체계 안에서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변화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로스·매킨타이어의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젼셔」(1882), 이수정의 「신약 마가젼 복음셔 언해」(1885), 언더우드·아펜젤러의 「마가의 젼한 복음셔 언해」(1887), 로스의 「예수 셩교 젼셔」(1887) 로 총 네 권이다.

1. 3. 연구 목적 및 방법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젼셔」와 「예수 셩교 젼셔」를 ‘로스 계열’로, 「신약 마가젼 복음셔 언해」와 「마가의 젼한 복음셔 언해」를 ‘이수정 계열’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연활자, 판형, 지면 구성, 정보 위계, 기호를 중심으로 두 계열의 조형적 특징과 설계 전략을 비교한다.

분석에는 대한성서공회 ‘고본성서 원문 보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사본과 판형 정보를 활용했다. 행수와 행당 글자 수, 정보 위계와 기호는 본문 지면을 직접 대조하여 분석했다. 디지털 사본의 상태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값으로 표기했다.

2.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과 제작 환경

2. 1. 로스·매킨타이어의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젼셔」(1882)

로스와 매킨타이어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 소속 선교사로, 조선 입국이 불가능했던 당시 만주에서 조선인들과 접촉하며 성경 번역을 시작했다. 로스는 이응찬에게 조선어를 배우고, 이후 서상륜,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등 조선인 조력자들과 함께 번역을 진행했다. 번역은 조선인 조력자가 중국 문리성경을 한글로 옮기면, 로스와 매킨타이어가 헬라어 성경, 흠정역(King James Version), 영어 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등을 대조하여 번역문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번역 작업은 선교사 개인의 일방적인 작업이 아니라, 조선인 번역자와 서양 선교사가 함께 만들어낸 협업이었다. 덕분에 특히 로스 역본은 한문투의 문장보다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을 중시하며, 서북방언을 포함한 토착어가 많이 반영됐다.

1882년 3월 24일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젼셔」 3,000권이 간행됐다. 당시 제작 현장에 대해 웹스터(J. Webster)는 '로스는 한 손에 그리스어 성경을 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며, 개역 영어성경과 한문 역본들이 그 옆에 놓여 있다. 한국인 번역자들이 붓을 들고 바쁘게 작업 중이며, 다른 한 명의 한국인은 옆방에서 활자를 식자하고, 두 명의 중국인은 인쇄기를 작동하고 있다.' 한 대뿐인 인쇄기와 서투른 식자공, 그리고 겨울 온도에 얼어붙은 잉크 때문에 제대로 인쇄가 되지 않다가 날이 조금 풀린 3월 중순경에 가까스로 인쇄를 마친 것으로 기록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젼셔」는 번역, 식자, 인쇄가 하나의 현장 안에서 동시에 이뤄진 근대적 제작물이었으며, 조선 안이 아닌 만주에서, 조선인 번역자와 서양 선교사, 중국인 인쇄공이 함께 만든 서적이었다.

2. 2. 이수정의 「신약 마가젼 복음셔 언해」(1885)

이수정은 임오군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기독교를 접했고, 미국성서공회 일본 지부 루미스(H. Loomis)의 권유와 지원을 받아 성경 번역에 참여했다. 먼저 「현토 한한 신약성서」를 간행했고, 이어 1885년 2월 요코하마에서 「신약 마가젼 복음셔 언해」를 1,000부 인쇄했다. 한문 성경을 주대본으로 삼되, 일본어 성경, 영어 성경, 헬라어 원문을 함께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수정의 번역이 조선 안이 아니라 일본의 선교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번역자는 조선인이었고, 후원은 미국성서공회가 맡았으며, 인쇄는 요코하마의 복음인쇄합자회사에서 진행됐다. 즉 이 서적은 한글 성경이었지만, 그 제작 조건은 일본 개항지의 국제 출판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신약 마가젼 복음셔 언해」의 가장 큰 특징은 국한문 혼용이다. 가능한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주요 개념어와 고유명사는 한자로 표기하고, 한글로 토를 다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이수정이 상정한 독자가 완전히 한글 독자라기보다 한문 독서 경험을 가진 지식인층에 가까웠음을 보여준다. 로스 역본이 토착어와 순한글을 통해 일반 대중을 향했다면, 이수정 역본은 한문 성경의 의미 체계와 한글의 음성 표기를 절충하는 방향이었다.

1885년 1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요코하마에서 이수정 역본을 받아 4월 제물포항에 입국했다. 이 역본은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에서 사용된 최초의 한글 성경이었다.

2. 3. 언더우드·아펜젤러의 「마가의 젼한 복음셔 언해」(1887)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입국 후 이수정 역본을 바탕으로 표현과 표기를 수정했고, 1887년 「마가의 젼한 복음셔 언해」를 간행했다. 이들은 번역 작업 과정에서 성서 번역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함을 느끼고 1887년 2월 7일 헤론(J. W. Heron), 스크랜턴(W, Scranton)과 함께 성서위원회를 구성했다.

류대영·옥성득·이만열(1994)에 의하면 기존 만주와 일본의 번역을 계승하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성경 번역 체계를 마련했다. 마가복음 개정의 최종 작업은 아펜젤러가 맡았다.

이 판본은 이수정 역본의 개정판에 해당한다. 한자를 대부분 제거하고 순한글 중심으로 수정했으며, 조선의 독자가 읽기 쉬운 표현으로 다듬었다. 번역은 조선에서 이루어졌지만 인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요코하마 복음인쇄합자회사에서 진행됐다. 당시 조선에서는 한글 성경을 안정적으로 대량 인쇄할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4. 로스의 「예수 셩교 젼셔」(1887)

로스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젼셔」 이후 번역을 계속하여 1887년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인 「예수 셩교 젼셔」를 간행했다. 낱권 복음서를 넘어 신약 전체를 한 권으로 구성한 최초의 한글 성경이었다.

「예수 셩교 젼셔」는 순한글 번역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약전서를 한 권의 묶음으로 완성한 판본이다. 같은 해 언더우드·아펜젤러의 「마가의 젼한 복음셔 언해」가 간행되면서, 개인역 시대 말기에는 만주와 조선이라는 서로 다른 번역 계열이 병존하게 됐다.

3.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의 타이포그래피 특징

3. 1.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젼셔」(1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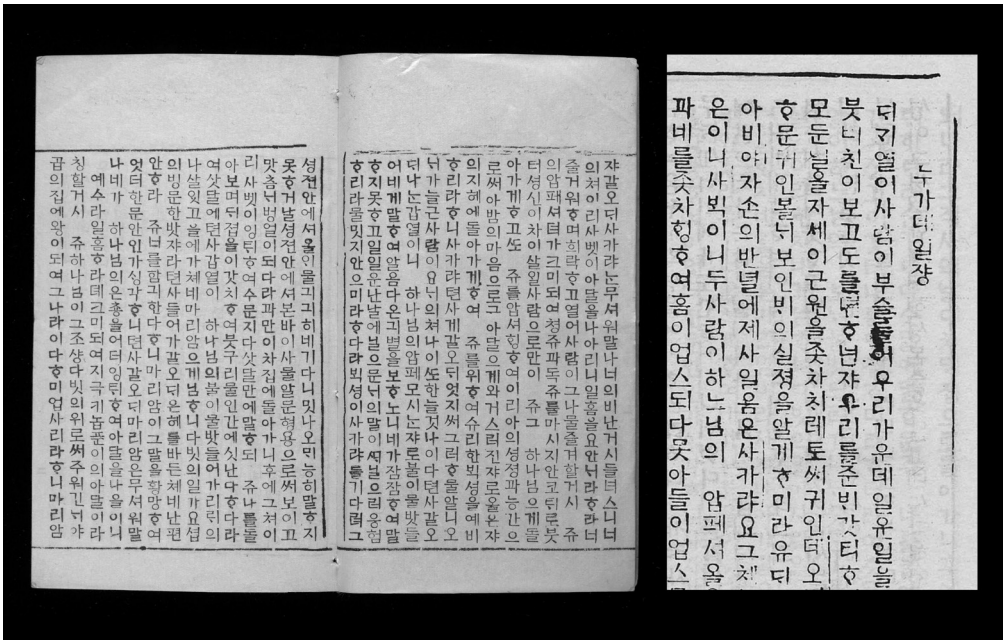

Figure 1 *Yesu Seonggyo Nuga Bokeum Jeonseo (1882)*

판형은 높이 233㎜ 폭 140㎜이다. 상단 여백은 46㎜, 하단 여백은 22㎜, 바깥 여백은 7㎜이며, 안쪽 여백은 제본에 의해 측정 불가하다. 바깥쪽을 제외한 세 면에는 굵은 단일선을 배치하여 글상자를 구획했다. 본문은 14행(行), 행당 24자로 구성되며 전각 글자를 양끝맞춤하여 세로와 가로가 모두 정렬된다. 결과적으로 자간은 넓고 행간은 좁아 보이기 때문에 글줄 흐름이 약하다.

사용된 활자는 성서체 3호(Two-line Brevier)이다. 성서체는 로스가 1881년 문광서원 인쇄소에서 한국어 출판을 위해 직접 설계한 한글 연활자이다. 로스는 한글 자모와 음절의 활자 모형을 직접 제작하여 주조를 의뢰했고, 인쇄 경험이 없었던 만큼 잉크도 직접 제조하여 사용했다. 자본은 이응찬, 종자 조각은 서상륜이 맡았다. 글꼴은 직선적이고 좌우 대칭이다. 획 굵기의 변화가 적고 자면이 넓으며, 이응은 글자 조합과 관계없이 정원형 비례를 유지하여 기하학적 인상을 갖는다.

지면 대부분이 동일한 활자로 조판되어 위계 구분이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서명(書名)은 생략되어 있다. 다만 장명(章名)·장수(章數)를 들여짜기하여 구분했다. 한자 면수(面數)는 왼면 바깥 여백에 본문보다 작은 크기로 조판했다. 면수는 생략되거나, 양면에 등장하거나 오른면에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등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

'쥬, 하느님, 키리스토, 예수' 단어 앞에 대두법(擡頭法)이 등장한다. 대두법은 문장 중 경의를 나타내고자 할 때 그 낱말을 딴 줄로 잡거나 아니면 몇 자 비우고 띄어쓰는 일종의 동양식 표기법이다(이응호, 1983). 이 서적에서는 주요 단어 앞 전각 한 칸을 비우는 대두법을 사용했다. 일부 인명과 지명에는 오른 곁줄을 적용했다. 곁줄은 가는 선으로 처리하여 독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강조했다.

3. 2. 「신약 마가젼 복음셔 언해」(1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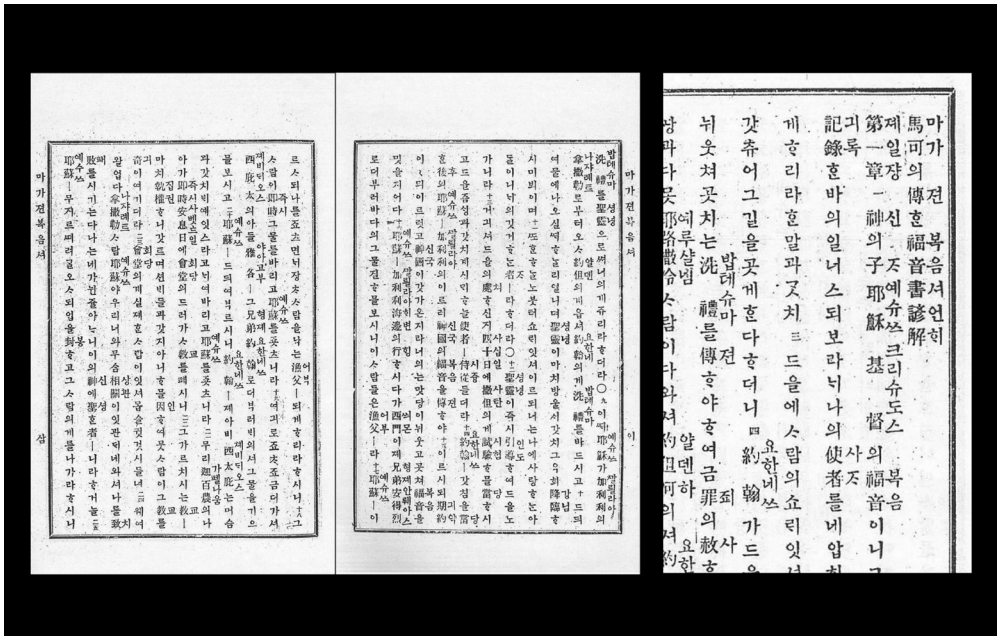

Figure 2 *Sinyak Magajeon Bogeumseo Eonhae (1885)*

판형은 높이 215㎜ 폭 150㎜이다. 상단 여백은 35㎜, 하단 여백은 22㎜, 바깥 여백은 10㎜이다. 글상자는 굵은 선과 가는 선으로 구성된 이중선으로 구획하며, 바깥 여백에는 서명과 면수를 배치했다. 본문은 11행으로 조판했으나 현토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22행이다. 행당 29자의 전각 글자가 양끝맞춤되어 있다.

사용된 활자는 한성체 4호(Three-line Diamond)이다. 한성체는 1883년 조선 정부가 근대적 인쇄와 출판을 위해 설립한 국가 인쇄기관인 박문국에서 1886년 「한성주보」에 사용하며 국내에서는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활자이나 이미 1885년 이전에 일본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다. 조선 후기 필서체 전통을 계승한 본문용 활자로, 이후 성경과 교과서, 일반 도서 등 다양한 근대 출판물에 널리 사용됐다. 우수한 조형미에 의해 작은 크기에서도 글줄의 밀도가 균질하게 유지된다.

양면 바깥 여백 상단에는 서명이, 하단에는 한글 면수가 본문과 동일 활자를 사용하며 두주(頭註)를 구성한다. 본문과 동일 활자를 사용한 장명은 글상자 오른쪽 상단에 배치됐다. 장명 뒤 공목을 두어 새로운 장의 시작을 시각적으로 분리했다. 활자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계 형성에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한글 장수로 시작하고 가로 단선(短線)으로 구분했다. 새로운 장수는 언제나 새로운 행으로 시작하여 장을 명료하게 구분한다. 절수(節數)는 한자 7호로 조판하여 지면의 정밀한 정렬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 장수는 한글로, 절수는 한자로 표기한 이유는 보유한 활자의 제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수는 본문과 분리된 위치에 조판이 가능한 반면, 절수는 본문 곁에 작은 크기로 넣어야 하는데 7호 한글 활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 활자를 사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문맥에 따른 띄어쓰기는 미적용되어 있으나 불규칙한 띄어쓰기는 등장한다. '耶蘇-예슈쓰', '約翰-요한네쓰'와 같이 한자에 비해 한글 표기가 긴 경우 한자 사이에 불규칙한 띄어쓰기를 적용했다. '예슈쓰, 쥬' 등에 후대두법이 적용되었으나 전각을 비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각 크기의 줄표(—)를 넣는 방식이다. 의미 단락이 끝나는 지점에는 빈원(○)을 삽입하여 독서 리듬을 조절했다. 지면의 명료한 위계질서와 기호 사용은 성경의 내용 전달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3. 3. 「마가의 젼한 복음셔 언해」(1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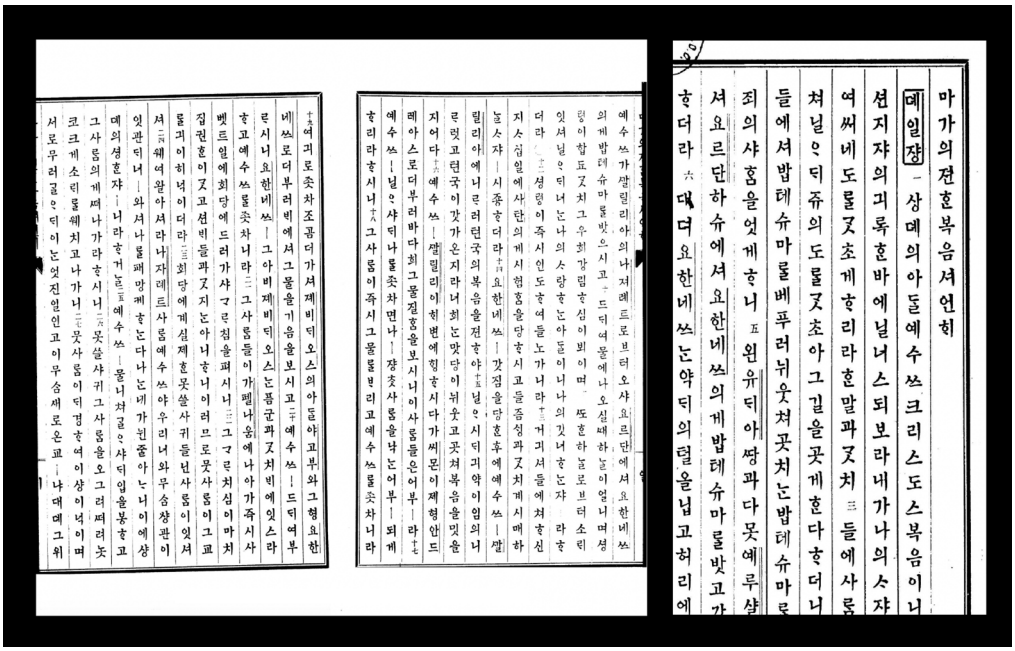

Figure 3 *Magaui Jeonhan Bogeumseo Eonhae (1887)*

판형은 높이 215㎜ 폭 150㎜로 추정된다. 상단 여백은 27㎜, 하단 여백은 25㎜, 바깥쪽 여백은 7㎜이다. 글상자는 이중선으로 둘렀다. 바깥쪽 모서리에는 앞면과 뒷면을 가로지르며 서명과 장식이 배치되었다. 그 하단에 면수와 함께 두주를 구성한다. 다시 말해 면을 펼치면 두주의 절반만 드러난다. 한 면은 13행, 행당 27자 구성이다. 행간에 가는 계선(界線)을 삽입하여 세로쓰기에서 글줄 흐름을 강화한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사용한 활자는 이수정 성경(1885)과 동일한 한성체 4호이다. 1887년판은 순한글로 전환하면서 지면 당 글자수가 줄어 글자 간격이 넓어졌다(옥성득, 2016).

본문과 동일 활자를 사용하는 서명과 면수는 두주를 구성하며 서적 전체에 규칙적이고 기능적으로 등장한다. 장명은 글상자 오른 상단에 본문과 동일 활자로 조판되어 있고, 장명 뒤 글줄을 비워 중요도를 강조한다.

본문은 한글 장수로 시작하며, 장수는 굵은 선 상자 안에 가두어 강조한다. 상자 아래는 가로 단선으로 다시 한 번 구분한다. 절수는 한자 7호로 조판하여 지면의 정밀한 정렬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장명, 장수, 본문, 절수가 각각 독립적인 시각 단위로 구성되어 네 권 가운데 가장 명확한 위계를 형성한다.

1887년판에는 인명에 외줄, 지명에 겹줄이 사용됐다. 이 선은 글상자 테두리 선과는 달리 매우 가는 굵기가 적용되어 글줄을 따라 읽을 때 눈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고유명사 구분을 명료하게 수행한다. 줄표를 사용한 후대두법을 유지했으며, 단락이 끝나는 지점에는 빈원을 삽입하여 독서 리듬을 조절했다. 로스 성경(1882)의 장점인 '단일 언어', 이수정 성경(1885)의 장점인 '활자와 위계'를 모두 갖추어 시각적인 완성도가 높은 지면을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읽기 경험을 크게 향상시킨다.

3. 4. 「예수 셩교 젼셔」(1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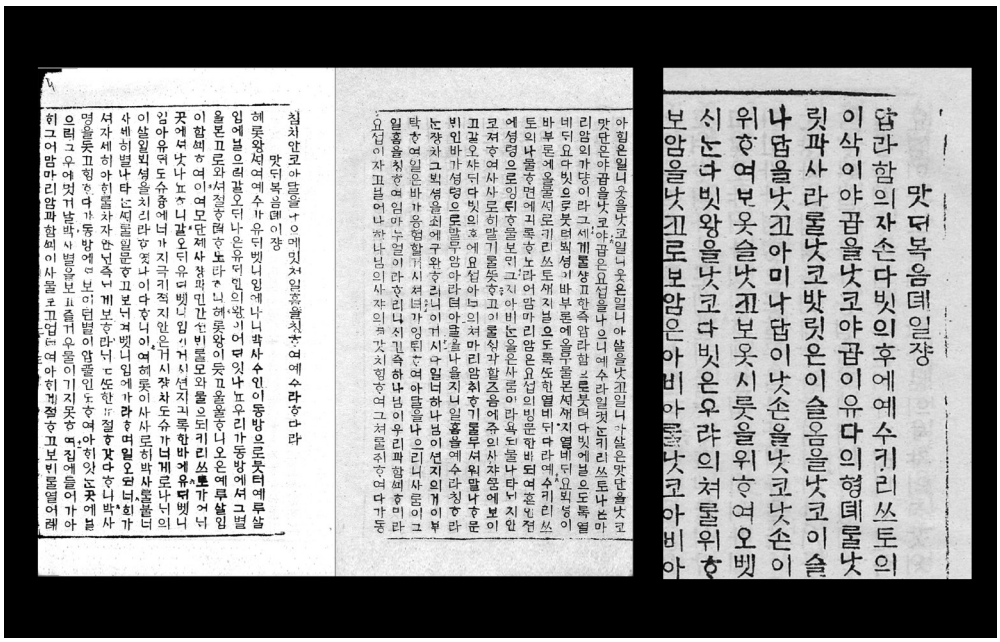

Figure 4 *Yesu Seonggyo Jeonseo(1887)*

판형은 높이 202㎜ 폭 139㎜이다. 상단 여백은 19㎜, 하단 여백은 18㎜, 바깥 여백은 3㎜이다. 전체적으로 로스 성경(1882)과 비슷한 지면을 유지하지만 몇 가지 변화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대두법과 겹줄을 생략했다. 한 면에 14행, 행당 무려 30자를 포함한다. 공목과 기호 사용을 절제하여 동일한 활자로 면 전체를 채웠다. 공간 효율은 높지만 시각적 리듬은 단조롭다. 둘째, 절수가 한자 6호로 추가되었다. 본문 활자와 크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글줄을 따라 읽는 데 방해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절수 자체의 판독성은 좋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행간이 소폭 넓어져서 이전 판본보다 세로 방향의 글줄 흐름이 경미하게나마 개선됐다.

Table 1 Typographic Comparison of Early Korean Bibles in the Individual Translation Period

구분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젼셔 (1882)	신약 마가젼 복음셔 언해 (1885)	마가의 젼한 복음셔 언해 (1887)	예수 셩교 젼셔 (1887)
번역 · 제작자	로스·매킨타이어	이수정	언더우드·아펜젤러	로스
계열	로스/만주	이수정/요코하마	이수정/조선	로스/만주
언어	순한글	국한문혼용	순한글	순한글
활자	성서체 3호	한성체 4호	한성체 4호	성서체 3호
판형/행×자	대/14×24	중/11×29 (+한글 90여자)	중/13×27	소/14×30
위계	최소 (장명, 면수, 본문)	명료 (서명, 장명, 장수, 절수, 면수, 본문)	정교 (서명, 장명, 장수, 절수, 면수, 본문)	최소 (장명, 면수, 절수, 본문)
기호	공목, 대두법, 겉줄	공목, 후대두법, 단선, 줄표, 빈원	공목, 후대두법, 단선, 겉줄 2종, 줄표, 빈원	공목

4. 개인역 시대 한글성경의 타이포그래피 분석

4. 1. 한글 활자의 두 계열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연활자가 사용됐다. 로스 계열에는 성서체 3호가, 이수정 계열에는 한성체 4호가 사용됐다.

박지훈(2011)에 의하면 성서체는 조형적 측면으로 볼 때 결코 호평할 수는 없는 자형을 띠고 있다. 당시의 새 활자체들과 비교할 때 붓글씨의 느낌을 전혀 찾을 수 없고, 판각이 서툴러 글꼴 상에서 획이라는 개념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이후 각종 성서 외에도 일반 서적의 제목과 목차 등의 비본문용으로 종종 활용된 것을 확인했다.

반면, 한성체는 새 활자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활자이며, 해방 이후 국어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인쇄물에서 쉽게 등장한다. 한성체는 글꼴의 균형이 약간 오른쪽 위로 들린 전형적인 정사각틀 해서체 계열로서 자폭과 자면의 비례가 안정적이고 획의 균형이 일정하다. 근대기를 대표하는 활자로 자리 잡았으며, 세로쓰기의 기능성이 잘 살아 있다고 평가받는다.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은 성서체와 한성체라는 두 활자로 출발했으며, 이들은 제한적인 근대 한글 연활자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4. 2. 판형과 지면 구성

로스 계열과 이수정 계열은 판형과 지면 구성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인다. 로스 계열은 신약전서를 한 권에 수록하면서 판형을 축소하고 정보 밀도를 높였다. 반면 이수정 계열은 1885년 판형을 유지한 채 순한글로 개정하면서 한 면의 글자 수가 약 413자에서 351자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로스 계열은 지면 효율을, 이수정 계열은 가독성과 정보 구조를 우선했다. 로스 계열의 판형 축소와 높은 정보 밀도는 신약전서를 한 권에 수록하면서도 휴대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로스역 한글 성경은 만주와 국내 여러 지역에 지속적으로 보급됐다(박형신, 2022).

「예수 셩교 젼셔」(1887)의 고밀도 지면은 만주 현지의 열악한 인쇄 인프라와 재정적 한계라는 환경적 제약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낱권 복음서와 달리 방대한 신약 전체를 한 권으로 단권화하는 과정에서, 인쇄용지와 잉크 등 물리적 자원의 한계는 한 면당 정보 밀도를 높여야 하는 설계적 요구를 만들었다. 더불어 쇄국정책 아래 성경을 조선 내부로 반입하고 대중에게 배포해야 했던 상황 역시 휴대성의 극대화를 요구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성서체 3호 활자를 유지하면서도 판형을 축소하고 행당 30자의 고밀도 조판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가독성의 퇴보가 아니라, 한글 성경의 보급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물리적 제약과 유통의 기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려 한 타이포그래피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4. 3. 정보 구조와 위계

정보 구조와 위계는 로스 계열과 이수정 계열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수정의 「신약 마가젼 복음셔 언해」는 이미 본문, 장명, 장수, 절수, 두주 등이 명확하게 구분된 지면을 보여주며, 언더우드·아펜젤러의 「마가의 젼한 복음셔 언해」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정보 위계가 더욱 세밀하게 조직된다. 반면 로스 계열의「예수 성교 누가복음 젼셔」는 공목과 여백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정보 위계를 형성했지만 오히려 「예수 셩교 젼셔」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구분조차 생략된다.

두 계열의 정보 구조는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이수정 계열은 정보 구분을 세밀화해 가독성을 높인 반면, 로스 계열은 신약전서 단권화 과정에서 지면 효율을 우선했다. 두 계열은 독서 경험과 공간 효율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4. 4. 기호와 독서 리듬

기호의 사용 역시 단순한 표기법의 변화라기보다 근대적 독서 방식의 형성과 연결된다. 목판본에서는 행갈이와 공백만으로 문장의 흐름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대 연활자 인쇄환경에서는 문장의 시작과 끝, 절의 구분, 정보의 중요도를 별도의 시각 요소로 전달할 필요가 생겼다.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두법, 곁줄, 단선, 줄표, 빈원 등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였다.

두 계열의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로스 계열은 대두법과 곁줄 등 제한된 기호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강조한 반면, 이수정 계열은 다양한 기호를 조합하여 독서 흐름을 세분화했다.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의 기호는 문장을 구분하는 부속 요소를 넘어, 독서 흐름을 시각적으로 조직하는 타이포그래피 장치로 기능했다.

4. 5. 출판 목적에 따른 타이포그래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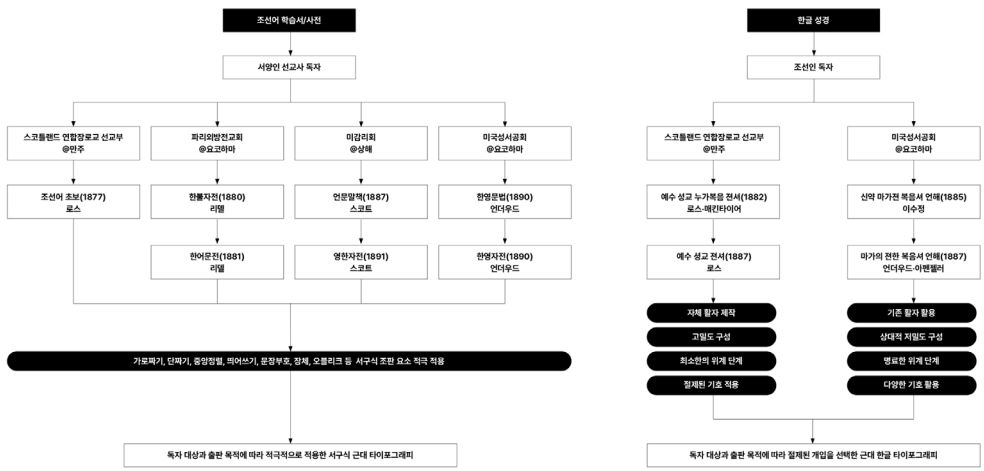

Figure 5 Typographic Strategies in Korean Learning Materials and Early Korean Bibles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의 타이포그래피 전략은 동시대 조선어 학습서 및 사전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선행연구(구자은·석재원, 2023)에서 분석한 로스의 「조선어 초보」, 언더우드의 「한영문법」·「한영자전」 등 서양인 독자를 위한 조선어 학습 문헌에서는 가로짜기, 단짜기, 띄어쓰기, 문장부호, 장체 등 서구식 조판 요소가 확인된다. 반면 조선인 독자를 위한 한글 성경은 세로쓰기와 기존 한글의 지면 구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새로운 조판 요소를 제한적으로 수용했다. 〈Figure 5〉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 목적과 독자층에 따른 두 출판군의 타이포그래피 전략을 비교한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 네 권을 대상으로 활자, 판형, 지면 구성, 정보 위계, 기호를 비교 분석하여 로스 계열과 이수정 계열이라는 두 개의 타이포그래피 계열이 서로 다른 설계 전략을 발전시켰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의의는 두 계열의 차이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동일한 시기 로스와 언더우드 등은 서양인 독자를 위한 문헌에서 가로짜기, 단짜기, 띄어쓰기, 문장부호, 장체 등 동시대 서구식 타이포그래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즉 서구식 조판 방식은 당시 이미 이들이 제작한 문헌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다. 반면 조선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 성경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으며, 세로쓰기와 기존 한글의 지면 구성, 대두법, 곁줄, 공목 등 기존 문자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러한 차이를 기술적 한계나 조형적 미숙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두 출판군의 차이에는 독자층뿐 아니라 사용 문자와 텍스트 구성, 제작 환경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양인 독자를 위한 문헌에서 서구식 조판 요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과 달리, 초기 한글 성경에서는 기존 한글의 문자 질서와 조판 관습이 상당 부분 유지됐다. 따라서 초기 한글 성경의 타이포그래피는 서구식 조판을 단순히 이식한 것이 아니라, 기존 한글의 조판 방식 안에서 새로운 요소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의 타이포그래피를 분석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위원회역 시대와 개역성경 시대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개인역 시대에 나타난 이러한 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이 이후 어떻게 계승되고 변화했는지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eferences

1. Choi, H. (1962). 기독교와 한글 [Christianity and Hangul]. *Theological Forum, 7*, 51-76.
2. Kim, B. (1975).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A Study of the History of Modern Translated Literature in Korea]*. Seoul: Eulyoo Publishing.
3. Ku, J., & Seok, J. (2023). 19세기 서구 학자 서적에 등장한 서구식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원형과 그들이 현대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미친 영향 [The original forms of Western Hangul typography found in the 19C Western scholar books and how they influenced the modern Hangul typography].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6*(2), 377-387.
4. Lee, E. (1983). 최초의 한글 성경『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First Korean Bible『Yesoo Syung Gyong Nuga Bogeum Jeounseo』]. *Korean Language Education, 44*, 421-455.
5. Oak, S. (2016). 1887년 개정판 『마가의젼한복음셔언해』 고찰 [A Study of the 1887 Revised Edition of Magaui Jeonhan Bogeumseo Eonhae]. *Bible Translation, 38*, 119-151.

6. Park, H. (2022).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과 현재 소장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Existing Copies of Ross's Korean Bible]. In *존 로스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Proceedings of the Symposium Commemorating the 140th Anniversary of John Ross' s Korean Translation of the Bible]*, 61–84.
7. Park, J. (2011). 새 활자 시대 초기의 한글 활자에 대한 연구: 호 사이즈 한글 활자의 제작 배경을 중심으로 [A Study on Early Hangul Typefaces in the New Typography Era: Focusing on the Development Background of Ho-size Hangul Type]. *LetterSeed, 3*(1), 724–757.
8. Reynolds, W. D. (1906). Translation of the Scriptures into Korea. *The Korean Repository*, 17.
9. Ryu, D., Oak, S., & Lee, M. (1994).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 · 반포와 권서사업 [History of the Korean Bible Society II: Translation, Distribution, and Colportage]*. Seoul: Korean Bible Society.
10. Webster, J. (1915). The Maker of the Manchurian Mission–An Appreciation of the Late Rev. John Ross, D.D.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and Free Church of Scotland*, 394.
11. Yoon, J. (1995). *한글성경번역사 (1882–1994)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1882–1994)]*.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에 나타난 두 계열의 타이포그래피 전략 연구

구자은*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안산, 대한민국

초록

연구배경 초기 한글 성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한글 활판 인쇄물 가운데 하나로, 한글문화사와 기독교사뿐 아니라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기독교학과 국어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타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한 분석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에 나타난 로스 계열과 이수정 계열의 타이포그래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젼셔」(1882), 「신약 마가젼 복음셔 언해」(1885), 「마가의 젼한 복음셔 언해」(1887), 「예수 셩교 젼셔」(1887) 등 네 권이다. 활자, 판형, 지면 구성, 정보 위계, 기호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은 로스 계열과 이수정 계열이라는 두 타이포그래피 계열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설계 전략을 발전시켰다. 로스 계열은 공간 효율과 보급성을, 이수정 계열은 정보 위계와 읽기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또한 두 계열 모두 기존 한글의 문자 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목, 여백, 줄표 등 제한적인 요소를 통해 서구식 조판 원리를 선택적으로 수용했다.

결론 개인역 시대 한글 성경의 타이포그래피는 서구식 조판을 단순히 이식한 결과가 아니라, 기존 한글의 문자 질서와 조판 관습 속에서 새로운 조판 요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결과였다. 이는 근대적 인쇄 환경과 기존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결합되는 초기 양상을 보여준다.

주제어 한글, 타이포그래피, 성경, 개인역 시대

이 연구는 2026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 구자은 (jku@seoularts.ac.kr)